

모바일시대 '개막' ...휴대전화로 불사·법회 안내 가능

스님이 보낸 문자메시지

경북 왜관에서 포교당을 운영하고 있는 세동스님은 2월 16일 오후 3시 핸드폰이 있는 신도들에게 "내일 오전 11시 일요법회가 병행됩니다. 초발심을 주제로 법문할 예정입니다. 바쁘시더라도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미용실을 경영하는 강사자월 보살 50 구미시 사곡동은 잠시후, 스님으로부터 핸드폰 문자메시지를 받고 법회 일시와 법문내용 등을 확인한다.

다음날 오후 2시, 집안일로 부득이 일요법회에 참석하지 못한 박상낙향 보살 47 경북 구미시 송정동은 스님이 보낸 법문 내용을 핸드폰으로 받아보고 다음주에는 꼭 일요법회에 동참하겠다고 결심한다.

이미 핸드폰은 현대인의 필수품. 핸드폰 무선인터넷을 이용한 새로운 개념의 종무관리프로그램이 사찰 방문시대를 열어가고 있다. 이전 사찰에서도 법회안내, 불사 등 사찰 행사를 신도들에게 알리기 위해 일일이 엽서나 편지를 보내는 작업이 불필요하게 된 것이다. 현대불교신문사와 지우커뮤니케이션대표이사 진한승이 무료로 보급하고 사후 관리를 책임지는 '상황종무관리(모바일버전 무료배포판)' 이하 '상황' 프로그램은 기존의 종무관리프로그램에 모바일 기능을 탑재해 각각의 사찰이 하나의 방송국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한 것.

종무소가 방송국으로 변해

'상황'의 가장 큰 특징은 모바일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사찰에서 법회일정, 법문 등을 핸드폰 문자메시지나 원클릭이메일을 통해 신도들에게 보내고, 신도들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신의 핸드폰으로 이같은 내용을 직접 볼 수 있다. 기존 핸드폰 문자 메시지는 40자 밖에 못 보낸다는 단점이 있지만 '상황'의 원클릭이메일을 이용하면 많은 분량의 문서라 할지라도 한꺼번에 사찰에 등록된 모든 신도편만 아니라 법회장석자, 이달의 생일자 등 특정인에게만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다. 또 기존의 엽서나 편지는 중간에 사라지거나 본인에게 직접 전달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문자메시지나 원클릭이메일은 핸드폰이 있는 사람이면 본인에게 직접 메시지가 전달되고, 확인여부까지 알 수 있어 우편을 이용하는 것보다 효과가 더 높다.

문자메시지로 신도에 알려 음성·음악·벨 등 서비스 다양



상황종무관리의 메인페이지.

다. 인터넷 홈페이지는 사용자가 직접 찾아와서 원하는 정보를 얻어가는 시스템이지만 '상황'은 이와 정반대다. 텔레비전 전원을 켜면 자동으로 방송프로그램들이 흘러나오듯이 핸드폰만 켜면 사찰에서 보내는 메시지가 자동으로 뜬다는 것이다. 문자는 물론 음성과 음악, 벨소리 전송도 돼 다양한 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하다.

본사·지우커뮤니케이션, '상황종무 프로그램' 무료 보급



그래픽=김영민

어떻게 설치하니 통신료 선납하면 프로그램 CD 우송

모바일 기능이 탑재된 '상황종무관리(모바일버전 무료배포판)'는 현대불교신문사(02-722-4162)에서 무료로 보급한다. 다만 모바일 기능의 이용시 부과되는 통신료(문자메시지 1건당 30원, 한국통신 표준과금)는 선납금 형식으로 납부해야 한다. 통신료 선납금은 20만원이며 이는 사찰이 모바일 기능을 사용할 때마다 1건당 30원씩 삭감된다.

- ① 현대불교에 전화주문
- ② 우편으로 CD 받기
- ③ 안내문 따라 설치
- ④ 지우커뮤니케이션에 전화해 인증받기(02-365-5933)

기존 종무프로그램과 연동 사찰용품 싼값 공동구매도



상황종무관리의 모바일기능 개념도.

다. 이를 활용하면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스님의 법문서비스, 득경이나 법구 소리를 활용한 모닝콜서비스, 불교고양대학 운영 등을 현실화 할 수 있다. 즉 사찰이 신도들에게 찾아 가는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어 방송국 기능을 하게 된다.

기존 DB도 자동 업데이트

기존의 종무관리 프로그램과 연동된다는 것도 '상황'의 장점이다. 기존의 종무관리 프로그램에 입력해 놓은 자료들은 '상황'에서 그대로 사용할 수 있어 자료입력의 수고를 다시 할 필요가 없다. 성능 또한 기

존 종무관리프로그램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기능과 모바일 알림 기능, 그동안 구현되지 못해 애를 먹었던 DM발송기능의 글자크기조절, 종횡 변환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어 종무관리의 혁신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가격에서도 기존 프로그램들이 처음 구입 시 백만원 이상의 목돈이 들어가고 월정 관리비를 내야 하는 것과 달리 무료이기 때문에 사찰 재정에도 부담도 없다. 특히 거액을 들여 산 기존 프로그램은 다시 프로그램을 구입하지 않는 한 2대의 컴퓨터에 나누어 쓸 수 없었으나 '상황'은 종무소와 주지스님 방의 컴퓨터에 모두 설치해 종무를 볼 수 있다. 무료이기에 혹시나 결함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걱정도 기우에 불과하다. '상황'은 인터넷으로 자동 업데이트가 되고 관리되기 때문에 컴퓨터를 잘 모르는 사람도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다.

업무줄고 법회출석률 높듯

매일매일 불교계의 뉴스를 보고 각 종단의 공지사항을 신속히 열람할 수 있는 것이 '상황'이 제공하는 또 하나의 매력적인 서비스다. 기존 프로그램은 온라인 연결이 되지 않아 단순히 종무소 컴퓨터에 설치된 프로그램에 불과하지만 '상황'은 그렇지 않다. 사찰 종무소에서 '상황'을 클릭하면 첫 화면에는 현대불교신문사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일간신문인 불타뉴스의 기사들이 매일매일 업데이트 되고 조계종, 태고종, 천태종, 진각종 등 당해 사찰이 속해 있는 종단의 소식 등 불교정보를 손쉽게 접할 수 있다. 아침마다 불교계 인터넷 홈페이지를 방문해 불교정보를 찾는 시간 낭비를 이젠 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상황'을 사용하고 있는 사찰들은 일종의 네트워크를 형성해 서로의 소식을 나눌 수 있고, 사찰에서 사용하는 물품들을 싼 값에 공동구매 할 수 있는 등 다양한 방면의 활용이 가능하다.

사찰 종무프로그램으로 '상황'을 사용하고 있는 세동스님은 "처음 핸드폰으로 신도들의 안부를 묻는 메시지를 보냈을 때 사찰 전화기에 불이 날 정도로 호응이 높았다"며 "핸드폰으로 법회나 불사 안내 등 사찰 행사를 알리니 우편을 이용했을 때보다 우편료와 업무시간이 단축되고 신도들의 법회 참석률도 3분의 1 이상 늘었다"고 전했다.

김두석 기자 doob@buddhapa.com

조각작품으로 안불 안불 정성껏 조각하여 모십니다

雪山白玉佛

우리부처님 코리아부다 KOREA BUDDHA http://www.korea-buddha.co.kr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8동 1663-6 세민빌딩 401호 TEL: 서울 (02) 864-8834 부산 (051) 637-2335 FAX: 서울 (02) 839-2185 부산 (051) 637-6888



고불총림법장 서운 큰 스님 / 주천서

